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2016 신년메시지

첫 사랑의 회복

서울교회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인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친 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리하여 첫 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예전에 없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어, 오직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만이 넘치는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Happy New Year!!!

박노철 목사



2016년을 시작하며

2016 위원장에게 듣는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201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다짐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 우리 총회와 교회의 표어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닌 이상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항상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의견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더 나은 해결의 길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겠지만 때로는 비록 차선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단호히 배격하여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함으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성도의 화목을 공고히 하는 일에 온 성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욱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서문석 장로
(기획위원장)

우리가 살다보면 절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벧후 1:5-6)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제가 안 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무슨 힘이든지 조절이 안 되는 힘은 위험합니다. 저수지의 물이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전기나 원자력이 조절이 안 되면 세상을 파괴 시킬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힘을 가진 믿음은 가져다 할지라도 절제가 안 되면 위험합니다.

절제는 절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자기 의지로 맺고 끊어서 정신적 행복을 얻는 덕목입니다. 절제는 사람을 만들고, 절약을 부유할 때 아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고 절약하는 사람은 '정신'과 '물질'과 '가치'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풍요를 주셔서,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영양과다(?)로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온갖 매스컴과, 지면을 메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교회가 이러한 때에 절제와 절약운동을 펼쳐서 이 사회를 향도

해 나가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기획위원회에서는 주일만이라도 절제와 절약의 모습으로 2016년도에는 절제 캠페인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외부에서 많은 상인들이 떡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각 기관, 부서에서 친교를 위해서 떡도, 다과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를 절제하고 온전히 성수주일 한다면 우리교회 목표인 빈약한자 구제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한끼 식사조차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설립 목적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2016년도에는 좀 더 절제하고 절약해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홍성주 장로
(예배위원장)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이요, 은혜와 고백의 대 함창이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확인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도 각종 예배와 각종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임상헌 장로
(찬양위원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 온전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만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서울교회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저희 찬양위원회 소속 모든 찬양성직위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큰 각오와 헌신의 다짐으로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찬양의 은혜로 온 성도들에게 영적 감동을 끼치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찬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가를 입으로 부르고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며 마음에 만족만 주는 음악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곡조로 표현하고 그 감격을 찬미로 완성하는 진정한 찬양이 되도록 저희 모두들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교회학교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찬양대들이 부서장의 행정적 리더십에 지휘자의 탁월한 음악적 지도력을 잘 접목하여 하나님께서 흠향하실만한 최고의 찬양을 이루어 내는데 열정을 다 할 것입니다.

숫적으로 배가되는데도 힘을 쓰겠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하여 질적으로 한 차원 더 성장한 찬양대가 되도록 정성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연습시간은 물론 실제 찬양에 임하는 시간까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참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섬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 온 성도들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육



이강진 장로
(교육위원장)

지난 해 교육위원회 각 부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울교회의 교육목표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양성이며, 행동지침 중 하나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교세의 정체, 영적 지도력 쇠퇴, 출산율 저하 등으로 교육여건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울교회도 한 영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적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경건하고 철저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성심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 사

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육체에 속하지(carnal or fleshy) 않고 성령에 속한(spiritual) 사람을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끈기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평보다 감사로 현실을 극복한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마다 특화된 방법으로 말씀 공부와 성구암송을 강화하고, 기도의 생활화에 힘쓰며, 예배에 정성을 들이고, 전도에 노력하며, 학부모와 더욱 소통하고, 교역자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돕겠습니다



최양진 장로
(새가족위원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새가족위원회에는 등록관리부, 새가족부, 세례교육부, 직분자양성부, 새가족환영부 5개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부는 202호실에서 등록카드를 제출한 성도(교회학교포함)들에 대하여 정식교인 자격을 취득 하기까지의 등록행정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새가족부**는 서울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등록필수과정을 운영하여 교회와 기독교 핵심진리를 안내하고 교육하며 양육합니다. **세례교육부**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세례문답교육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예식을 돕습니다. **직분자양성부**는 새가족교육을 수료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부서를 찾아 섬기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도록 돕습니다. **새가**

족환영부는 정식교인 자격을 취득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해당 교구가족들과 만남의 환영 오찬을 갖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며 마음들 곳 없어하는 새가족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따듯한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핍절하고 곤고한 영혼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짧은 배움의 과정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을 녹여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새가족 위원회 산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새해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교구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박두호 장로
(교구위원장)

교 :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 : 구령의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여
 위 : 위로하고 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어
 원 : 원하고 소원하는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이루는
 회 : 회복과 치유와 화해의 은혜가 넘치는 교구 위원회

교구는 몸의 심장과도 같아 온 몸에 피가 잘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의 하나인 소그룹비전(다락방)이 활성화 되고 부흥을 이룰 때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교구와 다락방이 하나로 결속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온 교구와 다락방의 구령의 열정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말씀으로 하나되어 열 여섯개 교구와 200여 다락방이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는 2016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최광성 장로
(전도위원장)

2016년에는 온 서울교회 성도가 1명이상 전도하기를 목표로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동참 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언젠가 부터 우리는 전도는 70인 전도대원이 하는 것, 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동안 많이 했으니라고 핑계하며 전도하기를 게을리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명령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 준비를 위한 전담사역자가 봄, 가을학기 12주간 동안 특강과 교육, 실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교회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연령별로 구성되어 남선교회

는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5시 웨민홀에서 연합으로 모여 경건회 후 선교회별 월례회를 갖고, 여전도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수요일 예배 및 다락방 공부 후 전도회 별 모임이 있습니다. 직능별 선교회는 의료 선교, 미용선교, 족구선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 연령에 맞는 전도회, 선교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전도와 구제를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 나갈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올해는 1명이상 전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나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여 2016년 연말에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



신용식 장로
(선교위원장)

우리 서울교회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전도와 선교, 교육과 구제의 사명을 목표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복음사역을 통해 삶의 질이 변화되었습니다. 국민소득 1인당 50불이던 나라가 2만 5천불 나라로 부요케 해주셨고, 선교사 2만 여명 파송을 이루게 해주신 선교 국가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과 순종과 나눔을 이루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교회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것을 연합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인해 분열된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선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는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화해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이며 선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데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창립 이래 한 가정 한 선교사 돕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최학인 장로
(구제위원장)

구제란 구하여 건져 준다는 말이며 구제비란 구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빈약한 자 구제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빈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뒤 돌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청원기도가 빵(밥)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셋이 있는데 '오늘' '양식' '우리'라는 용어로서 모두가 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용어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내일만이 아닌 '오늘'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양식(밥)'을 달라는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 기도에서 보듯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두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세상, 밥이 편중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빈약한 자의 구제'란 슬로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병든 이들과, 노인들과 사업에 실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과,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어린이들과 부녀자들, 북한의 동포들과 세계의 난민, 이산가족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며, 위해서 기도해야 할 형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울부짖고 우리들만 애타게 호소하는 것 같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선행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이 어린양 앞에 엮드린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진 금대접 안에 모두 담겨져 하나님께 진상된다고 요한계시록 5:8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심하여 구제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물질관으로



오정수 장로
(재정위원장)

25년전 맨손으로 서울교회를 개척하며 전세집을 돌다가 이곳 대치동에 예배당을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마음이 울컥 울컥합니다. 이 마음이 비단 저뿐 일까요?

설립 이후 서울교회는 자기를 위해 한 번도 풍성하게 돈을 써본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늘 긴축재정이었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고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는 힘에 겹도록 돕고 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6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원로 목사님의 지침을 따라 우리교회는 해마다 예산의 60%, 때로는 70%가 넘는 돈을 이웃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떤 부서에 있는지 부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서울교회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한파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피해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또박또박 헌금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쓸 수 없어 올 한해도 최대한으로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성도님들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물질관과 바른 가치관 아래 세운 올해의 교회의 예산 편성을 신뢰하시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교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교회



이관규 장로 (관리위원장)

희망찬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간 한 순간, 한 순간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출발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예배당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 서울교회는 지금까지 잘 관리하며 지켜움을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관리위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좀더 성숙한 질서를 요구합니다. 주차를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주셔서 주차위원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만나홀에서 식사와 교제를 하실 때는 옆 사람을 배려하여 너무 시끄럽거나 지저분하지 않게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어른께 먼저 자리를 양보하므로 성숙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울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천국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당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당회원 일동)



지난 주 우리교회는 총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대로 향존직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함에 감사드린다.

- ① 은퇴 장로 내외 ② 은퇴집사
- ③ 은퇴권사 ④ 장로 안식년을 맞는 하인선 장로

사진 : 손동혁 집사 이준태 집사

만민에게 전도

미얀마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박권준집사 (미얀마비전트립 단장)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 까지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진행될 비전트립을 위해 박영준 목사님과 16명의 팀원들이 매주 토요일 하나님 은혜속에 기도하며 교육받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교육과 준비를 끝낸 후 1월 20일 출발하여 7개교회에서의 주일학교 사역, 22개 후원교회 방문, 3일간의 주일학교 교사세미나와 요리강습, 군선교회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

다. 특별히 이번에는 미얀마 현지의 요청에 따라서 주일학교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세미나(본 교회의 심진희 목사님 주관)와 미얀마 교인들의 자립(소득 증대)을 위한 한국요리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참가인원 450명, 교사세미나와 요리강습 참가인원 각각 30명, 합계 약 510명 정도가 참여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팀원들과 우리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깨달아서 더 큰 믿음을 갖게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의 미얀마사역과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지사역에 필요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단장: 박권준집사 010-9630-5381
- 총무: 마승우집사 010-2977-7545
- 회계: 노애리집사 010-8780-1021

순방교회 배부용 미얀마어 성경 및 찬송(성경 70권과 찬송 70권), 교사세미나 교재 영어그림성경(50권), 교회학교 어린이 배부용 선물(500개), 촬영용 폴라로이드 필름 및 보호카바(600개), 교회학교·세미나·요리강습 참가자 배부용 수건(600개) 반주용 키보드(1개) 반주용 통기타(1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호산나대학 졸업에 정자이며 법무법인 울촌에 조기취업한 한정호 엄마입니다.

정호가 취업이 확정되던 날 얼마나 가슴이 터질듯이 기뻐는지 지금도 눈물이 핑 돌니다.

첫 출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아들에게 확인하고 또 하니 "엄마 꿈이 아니예요, 현실이에요"라고 하며 웃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거룩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호산나대학에서 정호는 많은 가르침과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 이전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뒤 돌아보면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표현이 어눌하고 주눅들어 있었지요. 엄마로서의 저의 소망은 사회인이 되어 살아가는 아들을 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선택에 좀 더 심사숙고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저리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호산나대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방문하여 학교를 둘러보던 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거침없이 발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곳이고 대학이다. 신앙안에 자유로움과 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이야말로 내 아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 느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호의 모습도 다듬어지고 학생회 선거를 위해 본인 스스로 선거운

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워드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려고 애쓰고 노력하여 취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많은 인내심과 참을성을 요구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정호가 하나둘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교훈과 마음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호산나대학 노란 잔디위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꿈꿔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꿈을 풀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멋지게 다듬어주셔서 다시 한번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호산나대학 교수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호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눔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 정호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절기에배 및 교회 행사

- 1월 1일(금) : 송구영신예배
- 1월 3일(주) :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 공동의회
- 1월 4일(월) ~ 9일(토) :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 1월 14일(목) ~ 15일(금) :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
- 1월 ~ 2월 중 :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
- 1월 20일(수) ~ 27일(수) : 미안마 양곤 비전트립팀 파송
- 1월 29일(금) : 다락방 리더 수련회
- 2월 3일(수) :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 2월 14일(주) :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 3월 7일(월)~5월 15일(주) :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열린프로그램 개강
- 3월 22일(화)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 3월 21일(월) ~ 26일(토)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3월 25일(금) : 성금요일 금요기도회
- 3월 27일(주) : 부활절 / 성찬식
부활절감사 찬양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 3월 27일(주) : 순결서약식
- 4월 12일(화) : 찬양대원 세미나
- 4월 17일(주) : 장애인 주일 / 특별찬양(사랑부, 예바다부)
- 5월 8일(주) : 아버지주일 / 특별찬양(교육1국)
- 5월 15일(주) : 향존직 선거
- 5 ~ 6월중 : 전교인 체육대회
- 6월 6일(월)~6월 25일(토) : 2016 흥해작전
- 7월 중 : KIMCHI신학세미나
- 7월 3일(주) : 맥추감사절 성찬식
- 7 ~ 8월 :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 8월 7일(주) :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 8월 15일(월) : 장로수련회
- 8월 26일(금) : 다락방 리더수련회
- 8월 31일(수) : 다락방리더훈련 개강
- 9월 5일(월) ~ 11월 13일(주) : 제40학기 서울성경대학 개강·열린프로그램 개강
- 9월 8일(목) ~ 9일(금) : 2016 바자
- 10월 중 : 향존직 훈련
- 10월 9일(주)~11월 27일(주) : 2016 사명자대회
VIP초대 새생명축제: 10월 28일(금), 30일(주)
- 10월 9일(주) : 성경 암송 대회(예선)
- 10월 14일(금) : 성경 암송 대회(본선)
- 10월 10일(월) ~ 11일(화) : 제46회 목회자신학세미나
- 10월 22일(토) ~ 11월 12일(토) : 수험생을 위한 토요 학부모 기도회 (매주 토요일)
- 11월 17일(목) :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 11월 4일(금) : 교역자·장로 목회정책협의회
- 11월 20일(주) : 추수감사예배 및 성찬식
추수감사 찬양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 11월 27일(주) : 교회설립주일 및 임직식
- 12월 4일(주) : 2017년 직분자 임명, 교구총회
- 12월 11일(주) : 성탄축하 찬양예배 / 교사총회
- 12월 18일(주) : 성탄축하 특별행사(교육부 전체)
- 12월 24일(토) : 성탄 전야예배
- 12월 25일(주) : 성탄절 새벽예배 / 성탄절 축하예배(Ⅰ, Ⅱ, Ⅲ부)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 / 향존직 은퇴 장로 안식년 / 전도시상 / 장한 어머니상 시상 주간성경공부 수료 / 특별제직회



아름다운 기부

오승중 집사 (호산나대학 부장)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호산나대학 학부모들께서 학교발전과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안학교 고등부 한지운 학생과 중등부 김연재 학생의 부모님께서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인케어학과 3학년 재학생인 이정아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1천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을 통해 하루하루 발전하고 행복해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늘 감

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호산나학교가 앞으로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배움터로서,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행복하게 공부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호산나대학 교직원 일동은 학부모님들의 거액 기부소식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학교와 우리학생들의 가정에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성찬식 :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16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교회는 신년을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한다.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 바란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2016년 되기를 소망한다.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1월 4일(월)~9일(토) 새벽 5시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열린다. 한 해를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특별새벽기도회 주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계 2:7)이며 강사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선다. 새해 일 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될 것이다.

2016 청지기수련회

1월 7일(목) 교구위원회로부터 시작

2016년도 청지기수련회가 1월 7일(목) 특별새벽기도회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교구위원회로부터 시작된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섬김위원들은 청지기수련회를 통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섬김위원들의 참여를 기도한다. 각 위원회의 청지기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교구위원회 : 1월 7일(목) 특별새벽기도회 후/ 101호
- 예배위원회 : 1월 8일(금) 특별새벽기도회 후/ 101호
- 교육위원회 : 1월 9일(토) 특별새벽기도회 후/ 101호
- 새가족위원회 : 1월 9일(토) 특별새벽기도회 후/ 603호
- 선교위원회 : 1월 9일(토) 오전 11시 30분/ 603호
- 관리위원회 : 1월 9일(토) 특별새벽기도회 후/ 503호
- 찬양위원회 : 1월 10일(주)부터 각 찬양대별로/ 교회
- 전도위원회 : 1월 30일(토) 오전 9시/ 603호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

에스라~아가, 빌립보서~데살로니가후서
1월 14일(목)~15일(금) / 9:30~17:00

2016년을 맞이하여 온가족 성경통독대회를 1월 14일(목)~15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범위는 구약성경 에스라부터 아가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후서까지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가를 바란다.

제203회 북한구원 월요기도회

1월 4일(월) 오후 7:00-8:30, 101호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이사장 이종윤 원로목사) 주최 제203회 북한구원 월요기도회가 1월 4일(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최된다. 세이브엔케이는 지난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시작하여 해외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국내로 구출하였으며, 탈북민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 청원을 위해 1,180만 명의 서명

을 받아 유엔 등 국제기관에 전달하였다. 또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지도자를 양성하고, 북한이 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 날 기도회는 1부 예배 - 박노철 담임목사의 인도와 오정수 장로의 기도, 이종윤 원로목사의 설교와 2부 - 탈북민의 간증과 중보기도 순서로 진행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도한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이 훈(1) 김옥순(1) 김철진 노의정(2) 하인선 남태순(1) 임흥수 하옥봉(1) 한승집 최미아(1) 김혜연 박은영(1) 이영기 이영숙(1) 노종렬(0.5) 김흥기 이새롬(0.5) 임선철 이영주(0.5) 김상태(0.5) 최향봉(0.5) 문경덕 최순정(0.5) 황광(0.5) 박찬희(1) 강낙훈(1) 서명철(0.5) 김영주 이해순(0.5) 기세현(0.5) 이상섭(0.5) 김병애 이흥재(0.5) 한나여전도회(2) 김광민 박민숙(1) 박정자(1) 이종열(0.5) 송인권(0.5) 신용식 김신영(1) 최원석 박길희(0.5) 주동재 김동진(1) 오민정(0.5) 추희경(0.5) 이호(1) 배옥선(1) 박경주(0.5) 김태수 김은희(3) 하극수 조영자(1) 이남성 최영란(1) 김희열 유슬기(1) 김정애(1) 최미경(0.5) 정승주 이양숙(0.5) 백훈 김명심(1) 리브가 전도회(1) 박석현 김점숙(0.5) 이옥수(0.5) 박혁 임영숙(0.5) 강재호 한혜경(1) (다음 주 계속)

한가족한선교사 후원자

김철진(2) 김선태(1) 이미경(8) 이현주(1) 전봉길(1) 서선옥(1) 박윤혜(1) 김혜연(1) 한승집(1) 김성주(1) 이영기(1) 서은석(1) 장석남(1) 박정수(1) 하인선(1) 성선규(1) 임흥수(1) 이 훈(1) 김광욱(1) 노종렬(1) 황 광(0.5) 임만석(0.5) 최향봉(0.5) 문경덕(0.5) 김상태(0.5) 최성욱(0.5) 장기연(0.5) 장예성(청소년) 송인권(0.5) 서명철(0.5) 김가순(0.5) 문성주(1) 강낙훈(1) 박미현(1) 김영주(0.5) 이준호(3) 고은옥(1) 김순영(0.5) 송인덕(0.5) 이상섭(1) 이미숙(8) 한나여전도회(1) 박동률(1) 현혜성(1) 김광민(1) 박정자(1) 이종일(1) 신용식(1) 임종현(0.5) 김명옥(1) 유동훈(0.5) 정민서(청소년) 정원석(청소년) 정승주(0.5) 이용우(1) 김상식(1) 최원석(0.5) 주동재(1) 오민정(0.5) 양지훈(0.5) 박 옥(0.5) 백도환(0.5) 이채봉(0.5) 이호(1) 박경주(0.5) 김태수(1) 하극수(0.5) 김희열(1) 김윤숙(0.5) 김성용(1) 정민자(0.5) 최미경(0.5) 한진수(0.5) 이관규(1) 강재호(1) 리브가전도회(1) 김효택(0.5) 김관규(1) 박석현(0.5) 박종권(1) 이옥수(0.5) 박영실(0.5)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후원자

한진수 김영화(2) 한삼민(1) 전봉길(1) 이옥수(1) 유선희(1) 이 훈(5) 정인원(2) 조한철(1) 진종석(2) 유관모(2) 송행희(2) 이경구(2) 김상식 이순례(2) 김형배(1) 박명실(1) 박석현 김점숙(1) 김순영(1) 성선규 김명심(3) 이재순(2) 송인권(1) 하인선 남태순(2) 김영주(1) 오현성 김명옥(2) 양득춘 최혜연(2) 김광민 박민숙(1) 김상태(1) 민정아(1) 홍광숙(1) 박경주(1) 김관규 윤희련(2) 소정부(1) 강희자(1) 이광열 엄금순(1) 이양숙(1) 오민정(1) 김혜연 박은영(5) 임선철 이영주(2) 정승주(1) 양지훈 최성희(1) 이용식(2) 김희진(1) 민순구 이영희(1) 김숙자(1) 박윤혜(2) 이영기 이영숙(1) 오영자(1) 이선자(1) 김숙행(1) 한혜경(1) 강재호(1) 강애자(1) 김광욱 서영희(2) 이한룡(1) 손태현(2) 인상준 임윤자(2) 지성철(3) 이남성(1) 김진숙(1) 이부자(1) 이관규 이순영(2) 박혁 임영숙(1) 박한옥(1) 송인수(1) 한은경(1) 박인규(2) 권혁만 정갑례(2) 정애신(1) 황 광(2) 서명철(2) 박정섭(1) 최영순(1) 김수호(1) 장정화(1) 임종태(1) 박명석(1) 강낙훈(1) 김가순 송희경(1) 최향봉(1) 서은석 김미성(1) 주동재 김동진(1) 마승지 마승완(2) 배옥선(1) 김선태 김옥순(2) 송경화(2) 이 호(2) 박정자(2) 박규영(1) 석상화(1) 이미숙(8) 최미경(1) 이상섭(1) 정수주 권길자(2) 노종렬(5) 신용식(1) 정복순(1) 김정숙(8) 신종균(1) 홍승전(1) 하극수 조영자(1) 임흥수 하옥봉(1) 이삭선교회(2) 장석남(2) 한나여전도회(3) 리브가 전도회(3) (다음 주 계속)



2016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주제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바르게 믿어요!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순종할래요	박노철 목사 양세다 목사
유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1월 21일(목)~23일(토)	아가페타운	주님과 함께 RESTART!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1월 15일(금)~16일(토)	아가페타운	쓰임 받는 그릇	박노철 목사 천세중 목사
청년1부	2월 23일(화)~ 25일(목)	아가페타운	예수, 내 삶의 능력!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정대은 목사 장재원 전도사
청년2부	2월 28일(주)~3월 1일(화)	로고스센터(과천)	알아감!	박노철 목사 김한원 목사 서준권 목사
사랑부	2월 21일(주)	서울교회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27일(토)	서울교회	사랑과 섬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2월 13일(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1월 29일(금)~30일(토)	아가페타운	Witness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김다니엘 목사

교회관리프로그램 (지저스온) 전산실무교육

교회학교: 1월 10일(주) / 교구: 1월 17일(주)

멀티미디어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2016년 각 부서 전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저스온 프로그램 전산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라며, 미참시 611호에서 개별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기 바란다.

1. 교회학교 실무교육

- 대상 : 교회학교 부장/부감, 지도교역자, 전산담당자(부장 참석 필수)

- 일시 : 1월 10일(주) 오후 3시 30분

- 장소 : 202호

2. 교구간사 실무교육

- 대상 : 교구 교역자, 교구장/부교구장, 교구간사

- 일시 : 1월 17일(주) 오후 3시 30분

- 장소 : 202호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4 북한구원한국교회(Save NK) 신년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7 한국기독교교회연합 신년세미나에서 설교한다. 1.8 새한국국민운동 신년하례식에 참여한다. 1.9 종교개혁500 임원회를 소집한다

■ 발령 : 16교구 이명아 권사 1월 1일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학장

■ 발령 : 5교구 김민철 집사 1월 1일 자로 KBS베이징특파원

■ 주일식당봉사 : 리브가 전도회(1.3)
한나 전도회(1.10)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관규 집사 윤혜련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강남노회 신년하례회

1월5일(화) 오전7시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 강남노회 신년 하례회가 1월5일(화) 오전 7시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모인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 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후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 02-558-1106
- 담당: 송미라 권사

기록물 제출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 받는다. 당회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 주기바란다. 또 2015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담당: 권재현 집사(멀티미디어단 전산 및 사료팀장)
노창훈 집사(순례자 차장)
최영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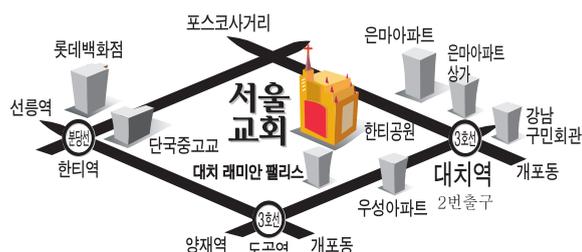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2.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3.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미안마 비전트립을 통해 양근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통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오후 1시 30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